

'사진으로 보는 자원봉사 이야기전' 참여 존 잭슨 조선대 언어교육원 교수

광주지검 '범죄예방 대학생 봉사단' 발족

## "40년전 그때 그 사진 보니 감회 새롭습니다"

"전시된 사진을 보니 '그때'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1971년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와 충남 공주에 배치되었는데 금강 곤나루에서 농부가족들과 생활하며 아름다운 시절 풍경을 찍고 했습니다. 장날이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한복 차림의 농부들이 많았지요. 그들 모두가 제 모델이었습니다."

13일 주한미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최로 광주 무등도서관에서 열린 '사진으로 보는 자원봉사 이야기전-한국 속의 미국인, 세계 속의 한국인' 전개막식에서 만난 존 잭슨(John keaton Jackson·조선대 언어교육원) 교수는 평화봉사단 시절을 떠올리며 약간 상기된 모습이었다.

### 1970년대 평화봉사단 활동

광주 아메리칸 코너가 있는 광주무등도서관이 도서간주간 행사 일환으로 열고 있는 이번 사진전은 지난해 베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관람 후 많은 관심을 보였던 행사로 서울 청계천 특별전시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 두 점의 작품을 출품하고 있는



13일 광주무등도서관 1층 현관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으로 보는 자원봉사 이야기전'을 찾은 존 잭슨 교수가 자신이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할 당시 찍은 사진 앞에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기자 jeans@kwangju.co.kr

잭슨 교수는 평화봉사단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인물. 그는 1971년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와 1970년 중반 7년간 고향에 돌아가 머무른 것을 제외하면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해오고 있는 셈이다.

주로 광주에서 생활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잭슨교수는 밭에서 배추를 뽑아들고 웃고 있는

아이를 담은 흑백 사진을 보며 당시를 회상했다.

"아이에게 와! 진짜 '김치'라고 해봐"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가 웃으며 그렇게 해주었고 그는 감사하게 이아가 덧니를 드러낸 채 미소짓는 모습을 찍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잭슨 교수는 "민약 임권택 감독이 지금 찍는 영화가 없다면, 그에게 '덧니 소년 찾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다.

1990년 중반 잭슨 교수는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흡뻑 빠진다. 광주로 이사 온 그는 잠시 접었던 사진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남도의 풍광을 카메라에 담아온 그는 이제 사진작가로도 알려져 있다. 보해 매화사진촬영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나주 배꽃사진촬영대회, 제주 해녀사진촬영대회에서 입상했으며 2008년도에는 '한국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달력을 출판하기도 했다.

### "남도 풍광에 반했어요"

조선대 언어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며 틈틈이 사진작업을 해오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중에 하나가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에 영어카페와 갤러리를 오픈하는 것이다.

또 항공사 관계자와 연결이 된다면 자신의 사진을 기내 잡지에 쓸 의향이 있는지 타진해 보고 싶다고 한다. 그는 현재 자신이 찍은 사진 5천여장을 모아 전시한 온라인 앤솔러리사이트(www.zenfolio.com/jkjack)도 운영하고 있다.

잭슨 교수는 기회가 되면 5월에 열리는 조선대 장미축제에 자신의 사진을 전시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순천 오카리나 앙상블 결성 4년만에 대상 영예

### 제1회 대전 오카리나 국제페스티벌

순천에서 활동 중인 오카리나 동호회가 최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오카리나 국제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해 화제다. 이들은 순천 오카리나 앙상블(단장 이재심) 동호회로 55개 팀을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동호회는 지난 2006년 오카리나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 8명이 모여 결성됐다. 하지만 인근에 지도해줄만한 강사를 구할 수 없어 회원들은 책과 동영상 등을 보며 독학으로 악기를 배웠다. 이렇게 1년간의 연습 끝에 한국오카리나앙상블협회에 지도권을 의뢰, 8명의 회원 모두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은 매년 가을 정기연주회와 순천시가 주최하는 음악회 동호인 연합팀과 공연 등을 통해 지금까지 200여회의 공연을 열었다.

또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오카리나 공연을 펼치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재심 단장은 "순천에 오카리나 전문 스튜디오를 설립해 오카리나를 널리 알리고 싶다"며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함께 나누는 봉사도 계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심형래, CJ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영화 만든다

### '더 딥 마피아' 제작

심형래 감독이 국내 최대 영화 투자금을 확보해 '더 딥 마피아'를 제작한다.

CJ엔터테인먼트는 심형래 감독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화제작사 영구아트무비와 '더 딥 마

피아'의 공동제작과 투자, 배급을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더 딥 마피아'는 미국의 최대 폭력조직 마피아의 대부가 숨겨뒀던 아들인 한국인 영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깜짝 발표하면서 펼쳐지는 소동을 그린 코미디영화다.

/연합뉴스



### 조선대병원, 구순구개열 몽골 어린이 무료 수술

안면기형의 장애를 안고 살아온 몽골의 어린이가 조선대병원에서 무료수술을 받은 건강을 되찾았다. 몽골 어린이 척드빌릭(7) 군은 구순구개열(언청이)로 태어나 생후 3개월째 혼자에서 1차 수술을 받았고, 1년후 다시 재수술을 받았으나 완쾌되지 못하고 지금껏 지내왔다. 이같은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광주에 사는 척드빌릭군의 이모가 몽골보다 의학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수술받기를 권유, 지난 8일 조선대병원 성형외과 양정열 교수팀의 수술로 혼자 빠르게 건강을 회복중이다. 조선대병원은 척드빌릭군에 대해 무료수술 및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에

지용현 (주)백제 회장이 오는 16일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장으로 취임 한다. 학평 출신의 이 회장은 조선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민주평통 자문위원, 광주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종합건설사인 (주)백제와 백제화약(주), 인터

넷신문 문화통을 경영하는 중견 기업인이다.

### 동신고 총동창회장에 선출

김형수 대한적십자사 광주회관장이 13일 광주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13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됐다.



진도군 임회면 적십자 봉사회는 최근 임회면 거주 장애우 10명과 함께 월출산 일대에서 봄꽃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진도군 제공)

### 단국대 의료봉사단 강진서 무료봉사



단국대학교 의료봉사단이 최근 강진 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했다. 이번 봉사에는 재활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의료진 31명이 참여해 주민 350여 명을 진료했다.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 227 - 4000	
故 김창돈 (남/88세)	
구구체 김동체 /박정선	
부재 김민아	
호실 402호	
월요일 10~11시50분, 동구문	
화센터 062-225-8700.	
▲윤이순씨 별세 박우선(광주북부경찰서)·우홍(LG이노텍)·우기(광주드림 경영본부장)·경단·경숙·경희·미경씨 모친상=발인 14일(수) 광주 그린장례식장 207호, 062-250-4455.	
▲김화성씨 별세 정희(광주인성고)·기형·점례·정례·정순·귀화·정복씨 부친상=발인 14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이형남씨 별세 재우(조선대학교)·기정·향·옥련·수정·미정씨 부친상 이승희(별교재일고)씨 시부상=발인 15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정옥재씨 별세 윤한홍·원영·명희씨 모친상=발인 15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영현씨 별세 상식·민성·상씨 부친상=발인 15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박서진씨 별세 신종식(영암도포증)씨 모친상=지영(해남황산동)·지수씨 조모상=발인 15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6.	
● 1688-3740	

